머리로 원샷원킬…'佛 살린' 미러클 맨

〈프랑스〉

볼배급·태클·파괴력 있는 헤더 강점
유로2016부터 프랑스 센터백 활약
팽팽하던 벨기에전 승부 가른 한방
움티티 "역사에 발자취를" 강한 집념

벨기에를 1-0으로 누르고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에 오른 프랑스의 구세주는 중앙 수비수 사뮈엘 움티티(25·FC바르셀로나)다.

움티티는 득점 없이 팽팽하던 후반 6분 그리즈만의 코너킥을 앞으로 달려들며 헤더로 잘라 넣었다. 중앙 수비수치고 체구가 크지 않은 움티티(183cm)이지만 위치선정과 순간 점프, 그리고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자신의 A매치 3번째 골이자 월드컵 첫 골이다. 특히 움티티는 이날 득점으로 조별리그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을 내준 실수를 만회했다. 결승골은 물론이고 마지막까지 상대 공격을 온 몸으로 막아낸 움티티는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OM)에 선정됐다.

움티티 덕분에 프랑스는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올랐고, 1998년 이후 20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도전한다.

카메룬의 야운데에서 태어나 두 살 때 프랑스로 건너간 움티티는 리옹 유소년팀에서 성장해 그 팀에서 2011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6년 7월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스페인)로 이적하면서 국제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움티티는 프랑스의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며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특히 2013년 터키 U-20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폴 포그바와 함께 프랑스를 정상에 올려놓았다. 볼 배급과 태클 능력은 물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파괴력 높은 헤더가 강점이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2016년 유럽선수권(유로2016)에 움티티를 데려갔고, 이후 러시아월드컵까지 중앙 수비를 맡겼다.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프랑스 실리축구의 중심에서 제몫을 다하고 있다.

움티티는 "우리 선수들 모두가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의 수비와 헌신이 승리를 만들었다. 팀 모두가 해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또 "1998년 프랑스가 멋진 우승을 해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들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라며 우승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프랑스의 중앙 수비수 사뮈엘 움티티가 11일(한국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준결승에서 1-0으로 승리한 직후 포효하고 있다. 움티티는 후반 6분 코너킥 때 공격에 가담해 헤딩 결승골을 터트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 AP뉴시스



개선문 앞 광장에 모인 파리시민들이 자국대표팀의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 진출에 환호하고 있다. 11일(한국시간) 프랑스 전역에선 12년만의 월드컵 결승행을 반기는 축제가 펼쳐졌다. 파리 | AP뉴시스

거리마다 만세 행렬…프랑스는 축제夜

밤 하늘 수 놓은 폭죽·경적 소리
2만여 파리시민 얼싸안고 환호성

12년 만에 다시 월드컵 결승에 오른 프랑스 전역이 축제의 물결로 뒤덮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뢰블레 군단'의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 진출 광경을 목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한국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을 찾아 귀빈석에서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함께 프랑스-벨기에의 준결승전을 관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 내내 자국대표팀을 향해 박수를 보내거나 양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0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는 두 팔을 벌려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한 파리 곳곳에선 프랑스국가를 부르며 "프랑스 만세"를 외치는 시민들이 넘쳐났다. 승리 직후 자동차 경적이 끊이질 않았고,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파리시청 앞에선 대형 스크린으로 자국대표팀의 승리를 지켜본 2만여 시민들이 환호성과 함께 서로 얼싸안고 춤을 췄다.

그러나 불상사도 빚어졌다. 프랑스 남부 지중해연안의 휴양도시 니스에선 불꽃놀이에 몰려든 사람들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27명이 다쳤다. 또 2015년 11월 파리 테러사건의 여파로 이날 파리시청 앞에는 1200여명의 병력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반면 벨기에 국민들은 안타까운 패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재우 전문기자

할리우드 액션·시간 끌기…음바페는 애교수준

축구역사에 남은 스타들 돌출행동

마라도나 신의 손·약물 파문 악명
지단은 박치기·칸토나 이단옆차기
핵이빨 수아레스 엄살왕 네이마르

결국 프랑스가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에 선착했다. 킬리안 음바페(20·파리 생제르맹)가 주역들 중 한 명이다. 11일(한국시간) 벨기에와의 준결승에서 비록 골을 넣진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날 음바페는 또 한 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우루과이와의 8강전에서처럼 할리우드 액션은 여전했고, 여기에 더해 과도한 시간 끌기로 옐로카드까지 받았다. 이번 월드컵에서 부각된 음바페의 미숙한 행동은 어쩌면 애교 수준인지도 모른다. 상상을 초월하는 돌출행동으로 비난을 자초한 선배들이 넘쳐난다. '악동'으로까지 불린 스타들이 즐비하다. 역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신의 손' 디에고 마라도나(58·아르헨티나)를 빼놓을 수 없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마라도나는 교묘한 핸드볼로 선제골을 뽑았다. 심판과 관중 대부분을 속인, 축구역사상 가장 유명한 핸드볼 반칙이다. 마라도나는 1994년 미국월드컵 조별리그 그리스와의 1차전에선 득점 후 흥분한 나머지 TV 카메라에 흥건하게 침을 뱉어 눈총을 샀다. 나이지리아와의 2차전을 마친 뒤에는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중도 퇴출됐다.

음바페의 '뢰블레 군단' 선배들 중에도 오명을 남긴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은 전설이 된 지네딘 지단(46), 티에리 앙리(41)와 에릭 칸토나(52)를 들 수 있다. 지단은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 도중 이탈리아 수비수 마르코 마테라치의 도발에 격분해 머리로 들이받고는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른바 '박차기 사건'이다. 마테라치의 비열한 발언이 발단이었지만, 지단의 퇴장은 프랑스의 패배로 직결돼 몹시 아쉬웠다.

'아트사커'가 낳은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앙리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유럽예선 플레이오프(PO)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큰 흠집을 남겼다. 2009년 11월 안방에서 벌어진 아일랜드와의 PO 2차전에서 0-1로 뒤진 연장 전반 13분 라인 밖으로 나가는 볼을 왼손으로 잡은 뒤 문전으로 찔러줘 윌리엄 갈라스의 동점골을 도왔다.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었지만 심판이 외면한 덕에 프랑스가 1·2차전 합계 스코어 2-1로 남아공행에 성공했다. 물론 앙리는 그 뒤로 아일랜드의 공적이 됐다.

칸토나는 지금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월드컵 무대만 밟지 못했을 뿐 1990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1995년 1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원정경기 도중 관중석의 팬에게 이단옆차기를 날려 한동안 EPL은 물론 세계축구계를 시끄럽게 했다.

악동 명단에는 루이스 수아레스(31·우루과이)와 네이마르(26·브라질)도 들어있다. 수아레스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3차전 도중 조르지오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물어 '핵이빨'이 됐다. 네이마르는 이번 월드컵 멕시코와의 16강전을 통해 '엄살왕'으로 공인받았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⑫

브라질 vs 우루과이 결승전 17만2772명 최다관중 기록

무기력했던 잉글랜드는 미국전 패배의 충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7월 2일 스페인에게도 패해 조별라운드에서 탈락했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축구종가로서는 엄청난 망신이었다. 2조의 결승라운드 진출팀은 3승의 스페인이었다.

3조에선 스웨덴이 이탈리아를 3-2로 꺾은 뒤 파라과이와 2-2로 비겨 결승라운드 티켓을 따냈다. 이탈리아는 파라과이에 2-0으로 이겼지만 탈락했다. 이 바람에 월드컵 우승팀의 저주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스웨덴은 당시 세리에A를 대표하는 공격수 3명(군나르 그렌, 군나르 노르달, 닐스 리드홈)을 보유한 강팀이었다. AC밀란 소속이었던 이들은 최강의 공격트리오였지만 스웨덴축구협회는 프로선수라는 이유로 출전을 허용하지 않고 아마추어들을 내보냈다. 4조에선 프랑스가 조추첨 뒤 이동거리 불만으로 기권하는 바람에 우루과이-볼리비아의 한 경기만 열렸다. 우루과이가 8-0으로 승리하고 결승라운드에 올랐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결승라운드에 들어가자 브라질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불을 뿜었다. 스웨덴을 7-1, 스페인을 6-1로 각각 눌렀다. 우루과이는 스페인과 2-2로 비기고 스웨덴을 3-2로 눌러 1승1무를 기록했다.

결국 2승의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만나는 7월 16일의 경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결승전이 됐다. 말라카낭에서 벌어진 그 경기를 보려고 무려 17만2772명의 관중이 모였다. FIFA는 이후 경기장의 안전을 이유로 15만석 이상의 경기장 건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 기록은 역대 월드컵 한 경기 최다 관중으로 남아있다. 엄청난 브라질 팬들의 응원 열기에 긴장한 우루과이 공격수 훌리오 페레스는 식전행사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다.

결승리그에서 보여준 엄청난 결과에 브라질 사람 모두는 우승을 확신했다. 우루과이와의 경기 당일 배달된 신문 1면에는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다. 경기장에 걸린 선수단 사진 밑에도 '브라질 세계챔피언'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경기를 앞두고 축사를 했던 리우데자네이루시장조차도 "조금 있으면 챔피언이 될 그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김칫국을 마셨다. 〈계속〉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